

‘군산야행’ 문화재 활용사업 선정

올해 큰 호응 얻어 재반영
문화재청, 내년 290건 확정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기대

문화재청은 내년에 활용할 지역 문화재 290건을 선정했다. 문화재청은 2019년 지역문화재 활용 사업으로 ‘문화재 야행’ 27건, ‘생생문화재’ 132건,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97건, ‘전통 산사 문화재 활용’ 34건 등 총 290건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들은 문화재청의 대표적 지역 문화재 활용 사업이다. 지역에 있는 문화재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개발해 지역민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했다.

생생문화재는 활용 사업은 2008년,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은 2014년, 문화재 야행 사업은 2016년, 전통 산사 활용 사업은 지난해부터 각각 운영되고 있다.

올해 공모에는 7월 한 달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총 424건이 접수됐다. 콘텐츠 우수성과 사업 추진 체계 운영을 전문가가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290건을 선정했다.

생생문화재 사업은 ‘문화재 문턱은 낮게, 프로그램 품격은 높게, 국민 행복은 크게’를 목표로, 잡자는 문화재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콘텐츠화해 문화재가 역사 교육의 장이자 대표적 관광지로 발돋움하도록 기획한 프로그램형 사업이다.

총 196건 중 132건이 선정됐다. 1년 차인 ‘시범육성형’이 17%로 23건, 2~4년 차 ‘집중육성형’이 50%로 66건, 5년 차 이상 ‘지속발전형’이 33%로 43건이다.

특히, 내년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할 만한 사업으로 함일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시범육성형 사업인 인천 중구의 ‘중구를 번지점프하다’, 독립운동가인 이동녕 선생 생가지를 활용한 충남 천안시의 ‘산류천석! 그대 석오처럼’ 등이 있다.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은 향교와 서원을 사람과 이야기로 가득한 생기 넘치는 문화 공간이자, 과거와 현재가 자연스럽게 공존하



문화재청은 내년에 활용할 지역 문화재 290건을 선정할 가운데 군산 문화재 야행 자료사진

고 인문 정신과 청소년 인성을 함양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총 120건 중 97건을 선정했다. 1년 차 사업으로 선정된 ‘시범육성형’이 18%로 17건, 2~4년 차 ‘집중육성형’이 49%로 48건, 5년 차 이상인 ‘지속발전형’이 33%로 32건이다.

2019년도 시범육성형으로 선정된 사업은 경기 연천군 연천향교의 ‘생동감 청소년 인문학당 연천향교’, 강원 양양군 ‘다시 시작하기, 양양향교’, 충북 청주시 ‘신항서원-세상에 인문의 신호를 보내다’, 전북 정수군 ‘긴물, 긴 역사 장수향교’, 제주 서귀포시 대정향교의 ‘유배의 땅, 평화의 섬이 되다’ 등이 있다.

특히, 울산 울주군 언양향교, 충남 공주시 충현서원, 제주 서귀포의 정의향교 등은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문화재 야행 사업은 지역 내 문화유산과 그 주변 문화 콘텐츠를 하나로 묶어 야간에 특화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공모사업 총 51건 중 15개 시·도의 27개 사업을 선정했다. 올해는 그간 광역시와 지역 대도시 중심으로 펼쳐진 문화재 야행 사업이 중소도시로도 확대해 더 많은 지역민이 야행을 통해 문화재 가치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큰 호응을 얻은 ‘군산 문화재 야행’과 ‘수원 문화재 야행’ 등 23건이 다시 반영됐다. 경기 안성시의 ‘안성 죽산 문화재 야행’, 충남 논산시의 ‘강경 야행! 타임캡슐을 찾아라’, 전북 김제시의 ‘김제 야행! 여름밤, 과거로의 여행’, 경남 통영시의 ‘통영 12공방 이야기-12가지 보물을 찾아라’ 등 총 4건이 새로 추가됐다.

전통 산사 문화재 활용 사업은 인문학적인 신유산과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전통산사의 문화재적 가치와 의미를 체험·공연·답사 형태로 국민이 누리는 고품격 산사문화 관광프로그램이다.

총 59건 중 34건을 선정했다. 논산시 쌍계사 ‘쌍계 마바시(마음을 바꾸는 시간), 경남 밀양시 표충사의 ‘산사에 울려 퍼지는 호국의 메아리’, 전북 남원시 실상사 ‘실상사, 천년의 향기’, 전남 순천시 송광사·선암사의 ‘조계산 천년산문을 열다’ 등 국내 곳곳의 산사가 지난 저마다의 특색과 고유 이야기를 담은 흥미로운 행사다.

특히, 내년에는 새롭게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산사’ 7곳과 대구 동구 동화사, 인천 중구 용궁사, 강원 춘천시 청평사, 정선군 정암사, 충북 영동군 영곡사, 충남 서산시 일락사 등 6개 산사가 추가로 선정됐다.

/뉴시스

유토피아 꿈꾸다, 정읍의 민족종교

정읍시립박물관 제12회 특별기획전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약 2개월간

정읍시립박물관은 2018년 두 번째 기획특별전, ‘유토피아를 꿈꾸다, 정읍의 민족종교’를 오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약 2개월간 정읍시립박물관 기획전실에서 개최한다.

기획특별전은 정읍시립박물관에서 매년 정읍의 중요문화유산을 선보이는 전시로써, 이번 전시에서는 정읍의 민족종교를 주제로 기획했다.

정읍 지역은 민족종교의 성지라 불릴 만큼 다양한 종교가 등장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보천교는 일제강점기 정읍시 입암면 대흥리(현재 접지리)에서 600만 신도를 자랑할 만큼 크게 성장했던 민족종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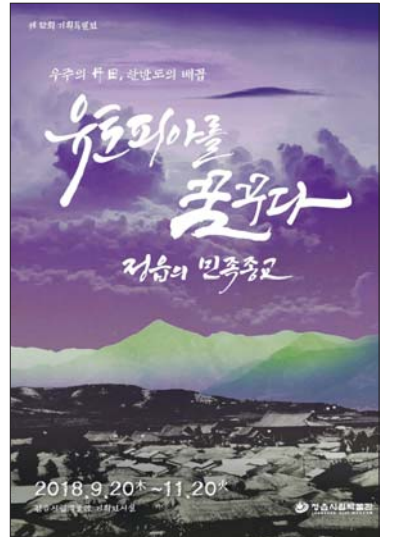
이번 특별전은 정읍지역의 민족종교를 소개하고, 이 가운데 가장 성장했던 보천교의 연구 성과와 유물을 모아 전시함으로써 민족종교의 새로운 모습을 조명하고자 한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정읍을 기반으로 하거나 중심지로 하여 활동한 민족종교를 소개하고, 일제강점기 가장 크게 성장했던 보천교의 내용을 담았다.

2부는 보천교를 비롯한 정읍의 민족종교들이 일제강점기 일제에 맞서 민족운동을 했던 내용을 자료를 통해 제시했다.

3부는 보천교의 민족운동 이후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전시유물은 각 종교의 독특한 문화와 향기가 배어있는 유물과 민족운동 관련 공문서와 신문자료 등 총 50여 점을 선보인다. 관람



객들은 정읍 민족종교의 새로운 모습을 만나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시 외에 연계프로그램으로 정읍의 근대종교라는 주제로 박물관대학 강의와 전시 기간에 정읍의 민족종교 유적지 답사를 계획하고 있다.

정읍시립박물관은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관람과 답사에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립박물관(☎ 063-539-679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깊어가는 가을, 진안고원에서 만난 시

진안문인협회 시낭송회 개최
음악공연 등 300여 관객 참석



(사)한국문인협회 진안지부(회장 이병울)는 지난 15일 진안 가위박물관에서 ‘2018 진안고원에서 만난 시(詩)’라는 주제로 시낭송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시낭송회의 시낭송모임인 진안솔내음 회원들의 시낭송과 초청 음악공연 등 다양한 행사로 이루어졌으며 300여 명의 관객이 함께했다.

특히 이번 시낭송회는 마이산 아래에 위치한 가위박물관에서 열려 시낭송회의 운치를 더했다.

가위박물관을 찾은 한 관광객은 “진안의 새로운 명물인 가위박물관도 보고 시낭송회도 볼 수 있어서 뜻밖의 선물을 받은 거 같아 좋았다”고 말했다.

이병울 회장은 “오늘 열린 시낭송회를 통해 함께한 군민 모두가 시낭송을 통해 심적 위안과 정신적 풍요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한국문인협회 진안지부는 2000년 결성되어 75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로 오는 10월 18일부터 열리는 진안 홍삼축제에 시화전과 백일장대회를 개최하여 진안의 문화발전에 더욱 힘을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문체부 예술의전당 이사장에 손숙씨 임명

2021년 9월까지 3년 임기... “30년간 쌓아온 경험으로 소통”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예술의전당 이사장에 손숙(74·대한민국 예술원회원) 씨를 임명했다고 17일 밝혔다. 임기는 2021년 9월 16일까지 3년이다.

연극계 원로인 손숙 신임 이사장은 예술의전당, 국립극단 등 공공기관 이사, 마포문화재

단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공공 문화예술시설·기관 운영과 문화예술 정책 등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쌓아왔다.

또한 꾸준히 연극 무대에 올라 예술작품으로 관객을 만나고 있으며, 방송·영화 등 문화예술 전반에 걸친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손숙 신임 이사장은 지난 30여 년간 문화예술 분야에서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연륜, 예술의전당 이사로 활동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계 현장과 소통하며 향후 우리

나라 대표 문화예술기관인 예술의전당의 발전과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